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월 7일(주일) 제1179호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1월 7일과 14일 ‘2018 선교헌금 작성 행사’ 실시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누구든지 참여가능

온누리교회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오늘(7일)과 다음 주일(14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2018년 선교헌금 작성 행사’가 열린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교헌금 작정을 선택한 성도는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동참하는 성도는 ‘신규

작성란’에 표기하고, 현금봉투나 자동이체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소속 캠퍼스, 성명, 휴대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 작성금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빠짐없이 표기를 해야 한다.

이미 선교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작성란’에 표기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는 성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현금봉투 방식으로 헌금하고 있는 성도는 자동

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헌금 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재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으로도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 분야는 선교사 자녀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번역, 자막, 영상, 디자인, IT사업, 숙소와 차량지원, 목요선교집회 및 선교스쿨 지원, 이주민 사역 지원, 선교지 컨설팅, 코칭, 중보기도팀 운영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성도라면 누구든지 재능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난민을 위한 희망학교 건립, 르완다 ‘Love House’ 건축, 이주민 선교 및 양육 프로그램 도입, 선교사 리더십 훈련, 러브무슬림 등의 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블레스 재팬, 인도네시아 롬복 스태인학교 건축, 몽골 도르노트 생명신문교회 완공, 긴급구호 난민 지원, 김포, 화성, 평택 M센터를 오픈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선교헌금을 작성하고, 재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관련기사 8-9면).

문의: 02-3215-3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7년 연말정산 안내
(기부금영수증)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발송 요청 가능하다. 직접발급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화~금, 주일)에서 할 수 있다.

CGNTV, NGO 더멋진세상, 월드비전, 컴패션은 별도로 발급한다.

CGNTV(www.cgntv.net)와 NGO 더멋진세상(www.abetterworld.or.kr)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CGNTV 02-796-2243

더멋진세상 02-2271-2248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18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는 신문으로 발행하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월 14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2018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내려 받을 수 있다.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유독 한국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였다. 박동순 장로(OCC공동체)가 무려 14년 동안 성경을 새로 번역한 이유가 말이다. 쉽고, 친절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의 나이 70살이었다. 40년 외교관 생활을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성경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이 세상에 나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4년 걸려 성경 번역한 박동순 장로

83세 은퇴장로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봤을 것이다. 습관을 들여 꾸준히 읽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성경 내용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고민해 봐도 그 뜻이 이해되지 않으면 개역개정, 우리말, 영어 성경을 뒤지기도 한다. 박동순 장로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40여 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분명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이 너무 많았거든요.”

박 장로는 주로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 사용하는 언어와는 맞지 않는 번역 때문에 곤란한 적이 많았다. 눈에 쉽게 들어오지도 않았다. 히브리어, 히랍어로 된 성경의 원본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번역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의 언어로 새로 번역을 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은 약 15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이다. 물론 그 후 몇 차례 개역이 있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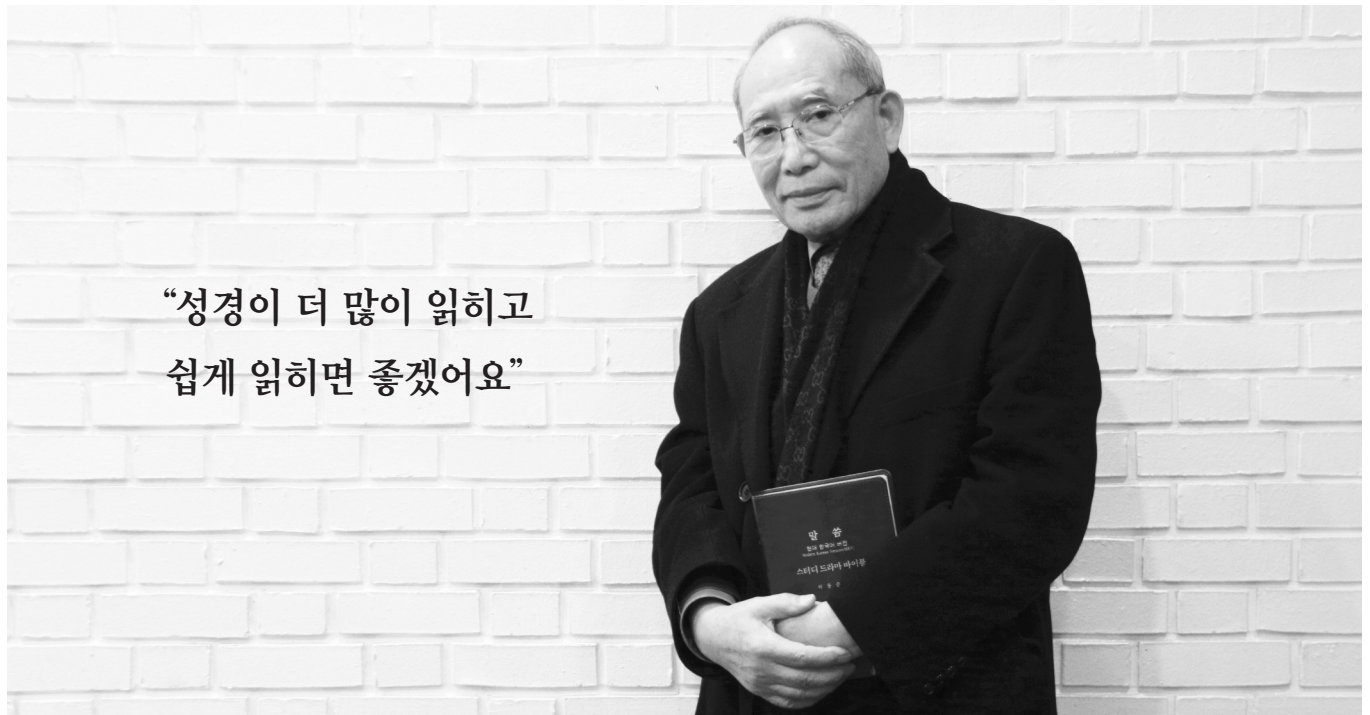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부 삼아 번역을 시작했어요. 하루 이를 지나간 것이 14년이 되었어요. 제 뜻만으로 될 수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원문 번역만 했는데 나중에 성경의 드라마 화가 떠올랐고, 각 책의 개요, 각 장의 개요, 지도, 그림 등을 넣어서 책 한 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4년이나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지요.”

박 장로는 구약은 히브리어-영어 직역 성경, 신약은 히랍어-영어, 직역 성경 여러 버전의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함께 펼쳐놓고 번역했다.

한 구절이 두 구절이 되고, 두 구절이 어느새 한 장이 됐다. 성경번역이 일상이 되어갔다. 매일 매일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하루 8시간 씩 성경번역을 했다. 꿈에서도 번역을 했다.

성경번역에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은 아내였다고 한다. “지난 100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성경이 있는데 성서학자도 아닌 사람이 왜 성경을 새로 번역해!”라며 박 장로를 만류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내놓아야겠다는 박 장로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성경이 더 많이 읽히고
쉽게 읽히면 좋겠어요”



성경이 비신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것이 꿈인 박동순 장로.

종합선물세트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

박 장로가 14년 동안 산고의 고통을 참아가며 세상에 내놓은 성경이 바로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이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번역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드라마 각본처럼 화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풍성한 주석을 더해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 딱 한권만 있으면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성경공부도 할 수 있다.

“여호와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9-10).

이 본문에서 화자는 하나님, 가인, 해설자 총 세 명이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쉽다. 박 장로가 번역한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하나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해설자: 그가 대답했다.

가인: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해설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들어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창 4:9-10).

같은 구절이지만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체를 사용하고, 화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박 장로의 성경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말씀 구절 앞에 화자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성경에 더욱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의 친절함은 이게 끝이 아니다. 66권 각 권마다 의미, 주제, 문장형태, 배경, 등장인물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각 장마다 설명도 했다. 성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도 추가했다.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은 한마디로 종합선물세트다.

박 장로는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이 성경번역이라는 대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히브리 원본과 히랍어 원본의 영어 직역 성경 및 10여개의 영어 버전 성경을 참조하여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번역은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도 결코 완전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 스테디 드라마 바이블>은 지난해 12월 20일 세상에 나왔다. 반응이 뜨겁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종교주간 베스트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박 장로는 성경을 번역한 지난 14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힘들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성경을 번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은혜가 엄청났어요. 한번은 꿈에서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박 장로의 도전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비신자를 위한 <드라마 성경>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성경에는 인생만사 모든 드라마가 녹아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롯과 나오미의 대화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시편, 잠언에는 세상을 사는 모든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비신자들이 교양서적으로 읽어도 충분히 재미가 있어요. 신학자도 아닌 제가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딱 그것뿐이에요. 성경이 더 많이 읽히고 쉽게 읽히면 좋겠어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생명, 사귄, 기쁨

요한일서 1:1~4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귄에서 느끼는
바로 그 기쁨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사귄과 동행이 참된 믿음의 능력이지요, 비밀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으로 이끌 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서신서’라고 하지만 인사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글로 작성된 설교 교훈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의 주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85년경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1세대 사도들이 거의 죽고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랫동안 섬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자녀들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노년의 때에 이른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양육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기록한 세 가지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요일 5:13).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요 20:31).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이들이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귄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3~4절).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목적은 사귄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사귄은 사람들끼리 사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서로 사귄 있게 하고, 그 사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히 넘치고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요한일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생명’입니다. 1,2절에 세 번 반복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귄’입니다. 3절에 사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과 사귄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는 ‘기쁨 충만’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육신의 어떤 감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 오감 그 이상의 체험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

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1~2절).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감 그 이상의 체험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몸을 해부하면 생명이란 실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장기는 우리 몸의 일부를 규정짓는 것이지만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아니면 심장에 있는지는 문화마다 다릅니다. 헬라인은 심장 깊은 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장 깊은 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목구멍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그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있기에 부활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의 영적 위기 중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영지주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정신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

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요일 4:2).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 분별법입니다. 주후 80년 전후에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증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기했던 불신앙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살아계십니다. 만약 누군가 신문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글을 실으면 틀렸다는 외침이 나올 것입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신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은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잠시 입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당시의 잘못된 이단이요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불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인 것은 믿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손을 마주잡고 약속하는 만남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살아있는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식사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의심과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어느 시대 어떤 문화 속에 있더라도 영원하신 생명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

〈13편에 계속〉

신
년
기
획

2018년 우리가 해야 할 일 1. 전도

전도는 언제나 옳다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
전도는 생활 ... 나부터 말씀대로 살고, 예수 바로 보여 주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큰 문제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다.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명이다. 그 첫 번째는 전도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고, 영혼구원에 직접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봤다.

/ 편집자 주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 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늘 그랬듯이 희망과 사 랑이 샘솟기를 소망하는 한 해를 기다리고 있 다.

그런데 새해 시작부터 한국 교회를 걱정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교회 위기 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가나안 성 도(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교회에는 출 석하지 않는 사람, 일명 안개 성도)들이 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호 감도가 무척 낮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발표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가나안 성도가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 11.7%, 2004년 11.6%, 2012 년 10.5%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더

가나안 성도 44.1%가 ‘엿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목 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14.4%, ‘교인들의 배타성’ 11.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8.3% 등의 순이었다.

이전 조사에서는 ‘게을러서’가 24.4%로 가 장 많았고, ‘직장문제’ 22.2%, ‘가정문제’ 20.7%, ‘믿음이 깊지 못해서’가 14%였다. 가 나안 성도가 늘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의지적 요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호감 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비기독교인들에 게 자기 종교를 제외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자 불교 40.6%, 천주교 37.6%인데 반해 기 독교는 형편없는 수준인 9.5%였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종교가 없는 이들은 무려 83.7%가 한국 교회

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다.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하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교회’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불과 0.2%밖에 없었다. 더 이 상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 고, 사람들도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통계가 말하 고 있는 시사점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줄어 들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이 급 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통계는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 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 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 국인의 종교 실태’에서 ‘종교별 신앙기간’을 조사했는데 기독교는 장기신앙자(20년 이상)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단기신앙자(5년 미만) 수치는 1984년 25%, 1997년 13%, 2004 년 11%, 2014년 6%로 계속 급락하고 있다. 단 기신앙자 감소세는 새신자수의 감소를 의미 한다. 이는 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밝힌 통계 수치대로만 보면 한국 교 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갈수록 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 미지와 배타성이 교회로 발걸음하려는 사람 을 가로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생각 이 달라진다.

2018년은 전도하기 딱 좋은 해

2018년은 전도하기 딱 좋은 해다. 이렇게 완 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적이 별 로 없다.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된다면 전도의 황금어장은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 질 것이다. 문제는 전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먼저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수의 강이자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도덕성 회복, 교회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이 필수적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하면서 강력한 원동력이 또 하나 있다. 크리스천 개개인이 나부터 말씀대로 살 고자 노력하고, 삶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 는 것이다. 이를 ‘관계전도’ 혹은 ‘모범전도’ 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게 시급하고 중 요하다.

또한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遺言)이며, 하나 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 고 생활화해야 한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 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곡히 전도를

전도사역본부의 역할과 사명

포스트모던 시대에 ‘딱 맞는 전도’

시대와 문화, 환경과 공간 뛰어 넘는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는 목 자,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쓰는 여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비유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 음을 깊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가 주인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지금 시대(포

스트모던)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전도’는 온누 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전도방법 ‘맞춤전도’

그동안 한국 교회의 주된 전도 방식은 ‘복 음 전하는 자 중심’이었다. 반면 온누리교회 의 맞춤전도는 ‘전도대상자 중심’이다. 이것 은 예수님의 전도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예 수님은 대상자의 사회적, 문화적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간파하셔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셨다.

복음의 내용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전달 방법은 시대와 문화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며 뱀처럼 지 혜로워야 한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이나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 로 다가갔다(고전 9:21~22). 그렇게 복음의 본질은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에 새로운 옷을 입혔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

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복음을 전하 셧다(마 9:10).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 인 전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성경적 전도 원리가 맞춤전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 다.

포스트모던 시대 불신자들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둘째, 교회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있다. 셋 째, 심각한 정서적 소외감이다. 불신자의 특 징 중에서 세 번째에 희망을 건다. 심각한 정 서적 소외감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50대 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사진 위)에서 친구가 정성스레 쓴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전도대상자.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사진 아래)에서 축복하고 있다.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려고 애썼다. 성도들의 몸에 밴 전도습관 덕분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나오는 8복음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상황과 연관될 수 있다. 즉, 심각한 정서적 소외감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을 수 있다.

맞춤전도는 불신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감성을 터치하여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는다. 포스터모던 시대를 사는 대상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맞춤전도를 위해서는 첫째, 전도대상자들을 연령 혹은 직업을 확인하며 문화적 코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도대상자들의 필요와 접촉점을 분석한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등의 질문이 필요하다. 셋째, 초청 과정이 중요하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 시작이다. 하나

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세대별로 대상을 선정해 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해 왔다. 20~35세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33~44세, 44~55세, 55~66세 여성 등으로 전도대상자를 나누고 세대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사역을 진행했다.

그 후에는 직업별로 대상을 선정했다. 의사, 교사, IT종사자, 금융인, 간호사, 음악인, 외식산업인, 환경미화종사자를 위한 사역을 진행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맞춤전도를 통해 그룹을 선정했을 때 더 많은 결신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부모님 맞춤전도의 경우 매년 300여 명이 참석해 70~80%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10~20%가 세례를 받고 있다.

다양하고 풍성한 전도방법

맞춤전도 집회: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전도 행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해 그들이 복음을 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맞춤기획하는 문화전도집회 형식. 연 2~4회 실시.
문의: 02-3215-3214

열린새신자예배: 예배와 교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 또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욱 열린마음으로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 예배이다.
주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양재 사랑홀
문의: 서빙고 02-3215-3177, 양재 02-570-7433

전도폭발학교: 모든 성도가 전도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무장시키는 훈련. 1~4단계, 각 12주 과정(각 한 학기 소요)
일장: 2월 26일 개강, 서빙고 콘서트홀(B2층)
주간반 오전 10시~오후 3시(현장전도 있음), 저녁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문의: 서빙고 02-3215-3214, 양재 02-570-7431

온누리전도학교: 복음의 핵심을 5분 내외로 전할 수 있는 '5분전도훈련' 교육.
일장: 서빙고 3월 18일부터 10주간, 오전 8시 50분~10시 10분, 홍보관
양재 3월 11일 개강, 오전 8시 50분 강의동 305호
문의: 서빙고 02-3215-3532, 양재 02-570-7431

군선교: '조국이며 안심하라'는 기치 아래 매주 화요일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을 진행. 각군의 신병교육대, 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전도집회, 세례식, 서서평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복음화에 전력하고 있다.
문의: 02-3215-3214

병원심방: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심방. 환우 대상 세례식, 병원사역자 돌봄 세미나, 병원 전도대회 등 개최.
문의: 서빙고 02-3215-3177, 양재 02-570-7431

병원선교(서울삼성병원): 서울삼성병원 내 직원들에게 선교적 사명의식 고취, 믿지 않는 환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
문의: 서빙고 02-3215-3177, 양재 02-570-7431

호스피스: 발반사요법, 미용스쿨, 학술세미나 참석 등을 바탕으로 환우들의 인생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 나라 확장 위해 전도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역
문의: 02-3215-3177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디다”(행 5:42).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전도 부탁을 최선을 다해 따랐던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하기를 당부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딤후 4:1~2).

현상만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망할 필요도 없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전도는 언제나 옳다. 2018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웃과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지금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눅 15: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 ‘열린새신자예배’가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결신자(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군선교와 병원선교를 통해서도 열매 맺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전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맞춤전도의 비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또한 온누리교회는 새신자들을 위한 맞춤

‘자켄사역’을 아시나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 높이고, 영적 성숙 도모

대전 온누리교회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자켄사역’이 그것이다. 자켄사역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양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년배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켄사역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켄사역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다.

자켄(Zagen)은 형용사로 ‘늙은’, 명사로 ‘노인’을 뜻하는 히브리어다. 자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사기에 등장한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삿 19:21).

한 노인이 목을 곳을 찾지 못해 성읍 광장에 있던 레위인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

다는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친절한 노인’을 ‘자켄’이라고 일컫는다.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자켄사역은 2016년 9월 기도모임을 시작했고, 2017년 5월부터 사역을 진행했다. 그 이름처럼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친절한 노인이 되는 것이 목적

자 목표다. 은혜, 사랑, 건강,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석 같은 사역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은혜 안에서 길을 묻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맞춤사역이다.

자켄사역은 대전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동년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심폐소생술, 웃음치료, 창조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강의를 듣는다. 일 년에 두 번씩 등산 등의 외부활동도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는 효과가 그만이다.

자켄사역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초청해도 좋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태인 팀장은 “안 믿는 부모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켄사역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켄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내와 함께 자켄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황선중 집사(76세)는 요즘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자켄사역 덕분에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소년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화순(71세), 이화정(69세) 부부에게도 자켄사역은 아주 특별하다. 자켄사역 덕분에 낯설었던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다른 종교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온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켄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화정 성도는 풍성한 교제가 꿀맛 같다고 했다.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고백했다.

“자켄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면 제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광식 집사(70세)는 자켄사역 덕분에 삶이 더욱 풍성해졌다. 자기계발도 하고, 동년배들과 깊은 교제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역칼럼



이창현 집사
(자켄사역 총무)

2016년 9월 어느 날이었다. ‘다음 세대 섬기는 사람’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박태영 목사님과 여덟 가정 부부가 자켄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했다. 그렇게 기도

로 시작한 자켄사역이 2017년 5월 1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전 근교에 있는 대청호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매년 5월이면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것이 연례행사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우리가 만나는 일이 익숙할 법도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목적지로 가는 내내 어르신들이 눈을 감고 계셨다. 초등학교생같이 소풍가면서 느끼는 설렘은 없다고 해도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이러한 낯설음은 자켄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찬양교실에서 함께 열창을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여전히 타인에 불과했다. 다른 교회 성도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도전했다. 목사님 다섯 분이 번갈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전해 주었고, 12월 17일에는 특별순서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즐거운 삶’에 대한 특강도 준비했다. 산책 등의 야외활동, 도자기 만들기 같은 체험활동도 준비했다. 서로 알아가고 성취감을 맛있게 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자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해서 말씀과 찬양교실, 특강시간을 30분 이내로 정했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우스갯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징조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호칭에 대한 문제였다. 목사님과 초청강사들이 가끔 ‘어르신’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특히 여성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이 아니라 ‘자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2017 자켄’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 자켄사역 모임을 시작한 7개월 동안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12월 17일 주일에는 자켄사역을 홍보하기 위해 소개영상을 틀었고, 특별순서로 자켄들의 합창이 이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켄들의 가장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갑상샘 수술과 턱뼈 이상으로 합창 연습하는 내내 걱정하셨던 권사님의 얼굴도 매우 밝았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60세에 섬김을 받는 것

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자켄사역의 목표가 아니다. 자켄들의 최종목표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이다. 이를 위하여 “안산M센터를 방문하여 섬기는 것이 어떻게?”, “대전 근교의 미자립 교회를 정기적으로 섬기면 어떻게?” 등의 의견이 오갔다.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해나갈 것이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켄(Zagen)은 형용사로 ‘늙은’, 명사로 ‘노인’을 의미한다. 사사기 19장에서 한 노인이 목을 곳을 찾지 못해 성읍 광장에서 밤을 맞은 불쌍한 레위인 가족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친절한 노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바로 자켄이다.

교회 안에서 자켄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즐거움을 찾는 자켄의 인생을 응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켄이라고 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읽는다.

신년에 보면 좋은 영화 '아바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이다. 복음은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친밀하고 가까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오염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관계의 혁명이다.

영화 '아바타'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지구는 가까운 미래에 당면할 에너지 고갈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먼 나뭇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인류는 독성을 지닌 판도라의 대기로 인해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족'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여 원격으로 조종하는 '아바타' 프로그램 개발한다.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 받는다. 곧이어 그는 판도라에 있는 인간 주둔 기지로 향한다. 그곳에서 제이크는 자신의 '아바타'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고, 자원 채굴을 막으려는 나비족의 무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임무 수행 중에 나비족의 여전사 '네이티리'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함께 다채로운 모험을 하면서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된다. 조금씩 나비족과 하나가 되어간다.

제이크에게 나비족과의 견고한 관계형성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나비족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이크는 나비족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그들과 전적으로 삶을 나누기로 결단한다. 제이크가 나비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해일루'이다. 나비족은 이것을 '교감(The bond)'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나비족과 자신이 철저히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됨을 의미한다.

복음, 놀라운 하나 됨의 능력

제이크가 나비족과 관계를 쌓아가며 그의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인간이 나비족을 공격하고자 하는 꾀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물론 제이크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비족은 제이크도 다른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견고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뢰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향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진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 더 이상 제이크를 믿지 못하겠다는 네이티리의 울먹이는 말처럼 말이다. 관계가 무너지는 곳에는 언제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이 따라온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던 제이크와 나비족의 관계에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 그 빛은 나비족에게 영험한 새로 알려진 전설의 새 '토루크 막도'다. 그 토루크 막도를 타고 나비족에 다가오는 제이크의 모습을 보며 나비족은 마음의 빗장을 다시 풀게 된다. 그리고 깨질 것 같았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힘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외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 인간이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일 뿐이다. 2018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어를 주셨다. 이 신비한 연합과 하나 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5-7).



정한효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신년에 읽으면 좋은 도서 <팀 켈러의 예수, 예수>

팀 켈러의
예수, 예수

팀 켈러 저 | 윤종석 옮김

TIMOTHY KELLER

두란노

<팀 켈러의 예수, 예수>.

얼마 전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던 일이다. 어린 두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했다. 산타로 변장한 한 선생님이 두 아들에게 한 해 동안 친구들에게 했던 일 몇 가지를 칭찬해주면서 선물을 주었다고 했다. 아들들은 이미 자신들이 필요했던 선물

을 손에 얻고 흥분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그 산타와 비슷한 사람이 어린이집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 미묘한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체육선생님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귀엽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산타를 지우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아이들의 동심 속에 있는 산타를 지우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이러한 뜻 깊은 축하와 소망의 성탄절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을 것만 기대하게 되었고, 행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그동안 행실을 제대로 했는지, 거짓말이나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반성하는 날이 돼버렸다. 이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또 산타를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선물을 기대하게 되었다. 연인들에게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었고, 길거리에서는 분위기 있는 캐럴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연인이 아닌 이들에게는 회피하는 날이, 기

업들에게는 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날로 전락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희망의 날에 정작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전락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희미해지고 인간의 외로움으로 채우는 시대가 되었다. 헛된 것을 찾는 목마른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음이 틀림없다.

<팀 켈러의 예수, 예수>의 저자 팀 켈러는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한다.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한 이 책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각성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해롯왕 같은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과 시간 사이를 뚫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 오셨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책 <팀 켈러

의 예수,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비밀은 개인의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겸손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명과 기쁨이 자라게 한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다. 저자는 이러한 겸손에서 시작한 단순한 일들이 모이면 우리 삶의 기초가 기쁨의 지하수 쪽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예수다. 우리를 위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태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줄 것이다.



김성욱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

진짜 선물

2000선교본부 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함께하는 선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 영광과 찬송 받으실 때까지



“온누리 선교행전이
계속되도록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온누리M미션의 이주민·난민사역, NGO 더멋진세상과 BEE등의 사역 열매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큼니다.”

올해 실시되는 특별한 선교사역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선교를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기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재능기부자 모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미션캠프도 열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전방에서 교회개혁 및 팀 사역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팀 사역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선교사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다른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우간다 난민들을 위한 학교 건축과 르완다 이주민들을 위한 집 건축 등의 사역이 진행 될 것입니다.

최근 온누리교회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 사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들도 기본양육과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Why Mission’, ‘단기선교훈련’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이로스’, ‘트레이닝 앤 멀티플라이’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주민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고국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특별한 집회도 열립니다. 라마단 기간에 맞춰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러브무슬림’이라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모든 선교사역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선교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재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재능기부로 선교사 자녀(MK) 교육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번역, 또 어떤 성도님은 심리상담, 차량제공과 숙소를 제공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올해는 재능기부 영역을 더욱 세분화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드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풍성하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년 온누리교회 선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2017년은 이주민사역 ‘제2의 도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집중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이주민과 난민사역’을 제시하셨습니다. 온누리선교는 이에 발맞춰 각 공동체와 캠퍼스에 선교 비전과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각 공동체와 캠퍼스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김포M센터, 화성M센터, 평택M센터가 개원했고, 각 캠퍼스마다 이주민사역을 신설하는 등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또한 러브소나타 10주년 기념 ‘동경 러브소나타’와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재팬’을 통해 일본선교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 호응해주셔서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일본 전역의 크고 작은 교회들과 선교 현장을 찾아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전체 아웃리치 참여 인원은 3,500명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BEE 등의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 917명은 선교 최전방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마이클 오 목사 등과 함께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로잔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국제적인 선교학자와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한국 글로벌 선교 리더십 포럼(KGMLF)’을 개최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때 나눈 내용은 향후 영문과 한글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선교대회 개최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선교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온누리교회 선교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올해도 ‘함께하는 선교’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공동체와 함께하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역에 참여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지 소식이 성도들에게 더욱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하고, 기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아웃리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선교현장을 개발하고, 성도님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와 일반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 혼자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세계 교회와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넬슨 제닝스 박사님과 한중국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선교연구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비터민 C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선교강국 지도자들에게 온누리교회의 축적된 선교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장중심의 선교’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 917명을 파송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2000선교 본부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선교베이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개혁

시 동참해 주셔야 할 중요한 사역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전쟁터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힘입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록 기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모임과 각종 기도모임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웃리치나 일반지역자 헌신 등을 통해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달려온 온누리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선교의 주인이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써가는 복음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온누리 선교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선교계획

기도 어플리케이션

- 선교지 소식 실시간 주고받고 기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재능기부모임 확대

- 재능기부로 누구나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돕는 사역

교회 개척 및 팀 선교

- 선교지 영혼들을 위한 전략적인 교회 개척 및 팀 선교

미션캠프

-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 캠프

우간다 난민 희망의 학교 짓기

- 난민 아동을 위한 학교 건축

르완다 Love House

- 현지인들을 위한 맞춤형 집 짓기 프로젝트

이주민 성도 양육, 선교 훈련

- 이주민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과 선교 훈련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구성

-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선교단체 네트워크 구성

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

- 12년 이상 된 파송선교사 위한 리더십 훈련

러브무슬림

-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2017년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블레싱 재편

- 53개 팀 1,800명 일본으로 아웃리치 참여

KGMLF(한국 글로벌 선교 리더십 포럼)

- 국내외 선교학자 90여 명 참석, '이주민과 난민' 주제 논의

온누리 선교 컨설팅

- 선교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 전략 모색

비타민C

- 아시아 및 남미, 유럽 기독교 지도자 87명 초청

인도네시아 롬복 스태신학교 건축

- 무슬림화 되는 지역 복음화 소망

몽골 도르노트 생명의원 교회 건물 완공

- 도르노트 지역교회 연합, 브리야트족, 몽골족 복음화

NGO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 11개국 13개 마을 주민 돕기

간접구호 및 난민 지원

- 일본, 스리랑카 홍수 지역, 요르단, 우간다 난민 지원

차세대 희망 프로젝트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학교, 기숙사, 비전센터 건설

이주민 명절 집회

- 16개국에서 온 이주민 1,200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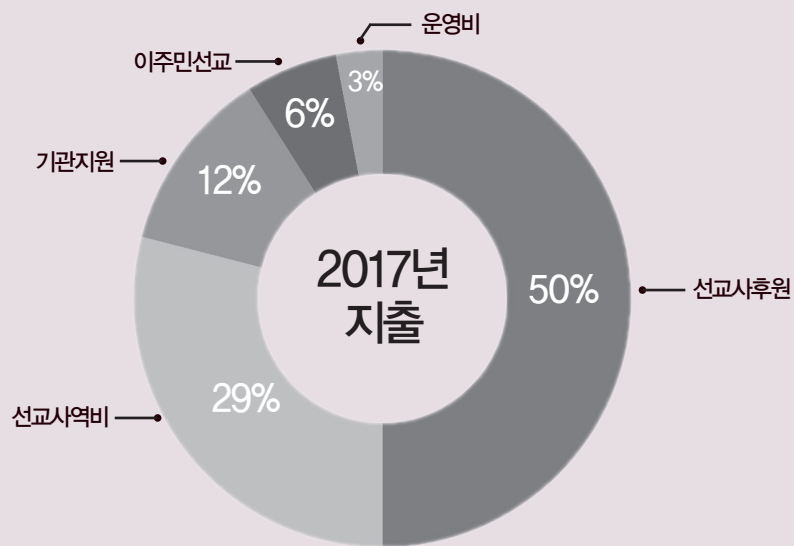
이주민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 이주민 100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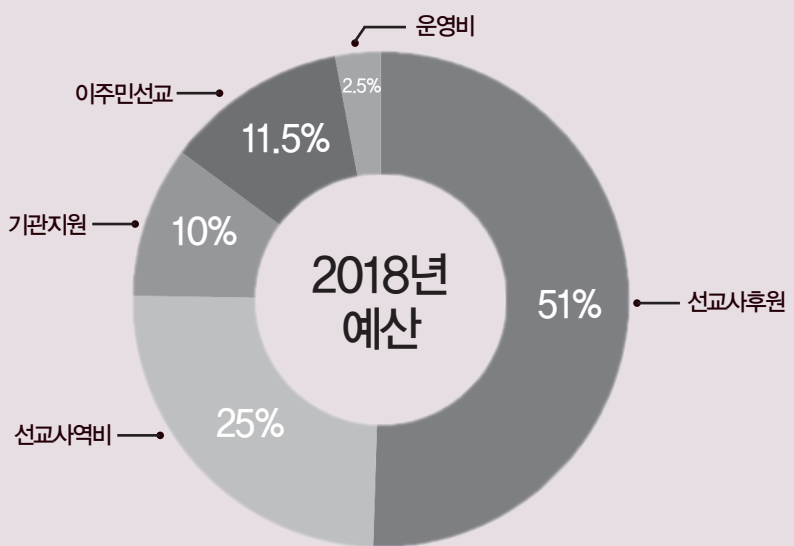
지역 M센터 구축

- 김포, 화성, 평택에 M센터 오픈

한 눈으로 보는 온누리선교 현황



예산액: 11,452,934,861원



예산액: 11,850,000,000원

2017년 지역별 파송현황 (77개국 917명)

동아시아	406
남아시아	218
중동	69
아프리카	60
소아시아	38
유라시아	35
북미	29
중남미	28
중앙아시아	27
오세아니아	7

연도별 선교사 파송 누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12월 30일 Sat 토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엡 2:20~22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작은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우리의 옛사

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고 말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잇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모퉁잇돌이란 건물 규모와 성격

을 규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퉁잇돌이 되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퉁잇돌과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사람을 이룰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통해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사해 나가야 하는 대상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함께 거룩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1월 2일 Tue 화요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요 14:21

이상준 목사

이번 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제는 ‘그리스도 아래서’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서’는 순종을 뜻합니다. 단순히 순종해야 한다는 율법적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순종뿐만 아니라 특권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과 사랑의 연관관계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경건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말씀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동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리 오렴”이라고 하

는 말이 명령일까요? 사랑일까요? 둘 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계명은 헬라어로 ‘바뀔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반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선택권은 순종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반드시 순종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디자인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정상이고 순종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는 표현은 행동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경은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백지를 들고 나아가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1월 3일 Wed 수요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마 16:24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벌받을까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죽음이 있고 추구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추구해야 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확대하고 괴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일에 동의하고,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믿

음으로 옛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겸손이 나타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를 율법적으로 이루어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죄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결심조차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1월 4일 *Thu* 목요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마 11:28~30

이재훈 목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주고, 또 그러한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온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을 정복했을 때 멍에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복당한 자는 승리자의 멍에 아래 있다는 종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복하신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 뜻대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노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삼촌 라반을 피해 나온 야곱을 압록강 나루터에

서 만나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의 환도뼈를 치고 항복시키셨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거만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산은 어쩌면 도망갈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서 매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지나갈 때 영적 승리를 경험할 것이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한 자가 될 때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수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더니 짐은 벗겨주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또 다른 수고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고, 그 짐이 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수고가 짐이 됐고,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했던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고가 짐이 아니라 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수고는 절대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라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짐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수고는 놀랍게도 몸은 피곤해도 마음에는 깊은 쉬(안식)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쉬를 얻습니다.

셋째, ‘동행’을 의미합니다. 어린 소가 밭을

가는 힘을 기르기까지는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메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2인 3각 경기를 할 때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메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방식은 교만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쉬를 얻는 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수고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온전히 묶여있고, 그분께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쉬를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고통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순간 우리는 참된 쉬를 이루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 사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1월 5일 *Fri* 금요일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고린도후서 10:4~6

이재훈 목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께 굴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굴복은 모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입니다.

참된 권위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

자비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선하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사상, 생각, 관념, 세계관이 그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권위 아래서 살게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무너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이 틈났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을 볼 때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민족, 가문, 형편, 신체조건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

다. 세상의 문화, 사상 속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된 권위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자유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부터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뿐 아니라 생각도 행동으로 보십니다. 스치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파묻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일 서빙고 본당에서 열린 '2018년 시무예배'에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 나타내는 사역 하겠습니다”

2018년 시무예배 13개 협력기관 8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8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 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누리교회, 13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Acts29비전빌리지, CGNT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경배와찬양, KIBI, 에셀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센터) 직원 800여 명이 함께 모여 '2018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시무예배는 당회서기 이철장로의 대표기도, 기관별 소개 및 구호제창,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철 장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이어 기관별 소개가 이어졌다. 13개의 각 기관들이 올해 비전과 포부가 담긴 구호를 힘차게 제창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시무예배에 참석한 직원들도 새

해 포부를 밝혔다. 넬슨 제닝스 목사(온누리선교연구소)는 “오늘 시무예배를 통해 올해 교회 표어를 잘 깨달을 수 있었다”며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잘 새겨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일 형제(CGNTV)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고백하면서 2018년을 지내고 싶다”고 했고, 오기현 간사(대학부)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정사역, ‘원데이 부부특강’ 실시

2월 1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사역팀(가정사역본부 소속)에서 부부들을 위한 일일 공개특강을 연다. 2월 10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 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이 강의한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꿈꾸는

모든 부부(비교인도 가능)가 대상이다.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는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부부회복 프로그램이다. 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에서 한국 상황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회비 1만원(1인당).

문의: 010-9041-5538

미자립교회 차세대 59명 초청

농어촌선교회, 12일~14일까지 서울 탐방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다니는 차세대 59명이 온누리교회를 탐방하러 온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회가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미자립교회에 다니는 차세대와 목회자를 초대했다. 미자립교회에서 온 손님들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온누리교회 및 서울을 탐방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남산타워, 롯데월드 등을 방문하고, 주일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농어촌교회에 다니는 차세대들을 온누리교회에 초청하는 목적은 농어촌 지역 차세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다른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구자엽 팀장(서빙고 농어촌선교회)은 “온누리교회를 탐방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차세대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차세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3485-5893



사진은 작년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CMN 드림팀, 아웃리치 팀원 모집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팔렘방

의료선교팀 CMN 드림팀에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웃리치’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의사, 치과과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미용사가 대상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는 현지 사역자, 선교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인이 아니라도 봉사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까지 전화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회비는 135만 원이다.

문의: 010-4230-1474

010-2586-5447

남양주 문화교실 1월 20일 오픈 예정

이주민과 탈북민 대상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1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주민과 탈북자를 위한 문화교실을 열 예정이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주관하는 문화교실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토요 다문화교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타교실’, 오후 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과 ‘주일 다문화교실’ 등이 있다. 글짓기, 책읽기, 미술치료, 바이올린, 영어, 기타연주 등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구리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자녀들과 탈북자들이 대상이다.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3937-3927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청년부 1월 5~7일, 대학부 1월 15~17일

대학청년부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청년부 리더십컨퍼런스 ‘더 원(The One)’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영산수련원에서,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고(GO)’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교원 비전센터에서 ‘Like Jesus’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부르심, 영성, 소통, 선교, 성령, 헌신’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홍성호 장로, 한정국 선교

사, 김승수 목사, 조준목 목사가 강의한다.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에서는 ‘개인, 세상, 문화, 거룩, 성령, 캠퍼스’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 김승수 목사, 최성민 목사, 최유강 대표가 메시지를 전한다.

대학청년부는 매년 초 리더십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순장, 부순장, 사역팀장을 포함한 리더십들이 참석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대전 청년부, 대학부 분리

대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대학부와 청년부로 분리됐다. 대학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누리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김찬호 목사가 담당한다.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박태영 목사가 담당한다.

인천·양지 차세대 예배 변경

인천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서 드리던 예배를 10분 당겨서 오전 11시 20분에 드린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초등부는 예배장소를 지하 1층 길보른홀에서 2층 스크린홀로 변경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 사귄, 기쁨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제도와 조직, 어떤 사상체계이론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귄입니다”(3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을 갖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귄을 논문으로 쓴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귄’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사귄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만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물체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물질과 사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과만 사귄 수 있습니다. 서로 생명일 때만 사귄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귄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죽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체 장기를 못 쓰게 되면 이식을 받습니다. 신체가 망가져서 못쓰게 될 때 누군가의 기증을 통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장기는 이식할 수 있어도 생명 자체를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식수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생명이 이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식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과의 사귄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사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귄 속에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넘치는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4절).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나누는 사귄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요 16:22).

환경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은 건강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은 물질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귄 속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이슬’이라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한다. 내게 드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사귄 속에서 쟁쟁한 음성을 들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귄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귄의 기쁨이 날마다 삶속에 넘치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주시고,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팀원을 모집합니다



김인순 집사
(양천공동체)

나는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첼로연주를 하고 있다. 2016년 부활절 칸타타가 그 첫 번째 무대였다. 당시 나는 온누리교회 2부 주사랑찬양사역팀과 함께 소망교도소에서 ‘축복하노라’를 연주했다.

당시 내가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100명이 넘는 찬양사역팀과 챔버가 함께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 공연을 한다는 마음이 교도소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300명의 간지자들을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

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이들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왔습니다. 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맞추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선포하고 피아노 선율에 맞춰 첼로로 ‘축복하노라’를 마음에 담아 연주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눈물이 며칠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했다.

“주님, 간지 자들과 찬양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만나야 그들의 마음이 마시멜로 같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만 해도 온누리교회에 새사람사역팀이 있는 줄을 몰랐었다.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이

로 함께 할 연주자들을 찾아보니 주사랑찬양사역팀 이경애 권사님을 중심으로 연주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The Sky Ensemble’이라는 연주팀이 만들어졌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우연히 새사람사역팀 팀장 백종신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The Sky Ensemble’ 팀원들은 서로 시간을 맞춰 연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찾아가 찬양사역자로 봉사했다. 벌써 1년 반이 되어간다. 교도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특별하다. 예배시작 전에 재소자 30명쯤이 예배당에 모여 준비찬양을 하면서 목사님, 새사람사역팀원들, 찬양사역자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신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경직된 표정이지만 그래도 반가운 눈빛으로 맞아주신다. 서로 대화는 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을 통해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재소자들의 수놓인 변호만 알 뿐 이름도 모르고 불러줄 수도 없지만 재소자들이 우리의 연주를 들으면서 환호성 칠 때도 있고, 아는 곡을 연주하면 “아멘”을 외치며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한다. 함께 울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나는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응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재소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교도소에서 연주하는 이유다.

새사람사역팀 팀원 모집
재능기부: 찬양인도, 상담(전공자), 미술치료,
차량, 예배, 일대일 사역
문의: 010-3625-0266

“내가 교도소에서 연주하는 이유”

Acts 29

게시판

2018년 1월 7일(주일) | 제1179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팅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스페인어 기도모임

인도: Ps. Cristian Neira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

문의: 010-4924-2703 *통역 지원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착)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샘물중고등학교 교직원 채용

대상: 성경, 입학(기획/마케팅), 노작, 묵공

마감: 1월 1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www

.smca.or.kr)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채용

대상: 성경, 상담교사

마감: 1월 1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은혜샘물교회 홈페이지 참

조(osmcc.or.kr)

KIBI 살롬예루살렘 대회 공연단원

현신자 모집

대상: 공연기획자, 테너, 바리톤, 메조소프

라노, 대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어

린이전양단(7~11세), 컴퓨터 애플디자

이너

마감: 1월 15일까지(날짜는 변동)

문의: 키비(02-792-7075~6)

두란노아버지학교 자원자 모집

일시: 1월20일~2월24일(매주 토 오후 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

접수: 02-2182-9151, www.father.or.kr

문의: 김상수(010-4906-1313)

*아이스쿨에서 등록가능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7일 · 14일

선교 재능기부 접수

1. 현장 접수 (2018년 1월 7일, 14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1층 로비 / 양재 사랑홀 로비 / 각 캠퍼스
2. 온라인 접수 (연중 접수 가능):
재능기부 QR코드 참조
<https://goo.gl/scn5hX>



※ QR코드와 짧은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선교재능기부 문의 070)4949-7886

선교헌금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기존 가입하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2. 현금봉투 방식 :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

